

【 해외금융 뉴스: 유럽 】

물가 급등으로 인한 금리인상 가능성

□ 최근 국제유가, 식료품가격 등이 크게 상승하면서 유로지역의 소비자물가 수준이 유럽중앙은행의 목표치를 상회하게 되자 물가상승 기대심리를 조기에 억제하기 위한 기준금리 인상 움직임이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대두됨.

- 유럽중앙은행(ECB)은 유로지역의 1월 현재 전년동기대비 소비자물가 상승의 목표치가 2%를 상회하는 2.4%를 기록함에 따라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 했으며 그 시기는 2011년 말에 될 것으로 언급함.
- ECB는 물가상승 기대심리가 확대될 경우 임금 상승 등 2차 파급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유럽 주변부국가의 채무가중, 경기회복 지연의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금리인상을 하겠다는 시그널을 전달함.
 - 그러나 즉각적인 금리 인상은 현재의 경기둔화 추세상황을 고려해 볼 때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분석됨.
 - ECB는 3월초에 발표될 2013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%이상으로 전망된다면 연말보다 더 일찍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유럽은행권은 3분기 정도에 금리인상이 단행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인상폭은 최대 0.5%에서 0.25%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.
- 이와 같은 금리인상 조짐은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임.
 - 2008년 금융시장 불안과 국제유가 급등으로 물가상승 조짐이 나타났을 때 미국은 경제둔화를 우려하여 최근처럼 금리인상을 단행하지 않았으나 유로지역은 경기둔화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금리인상을 단행하였음.

□ 유로지역의 소비자물가는 중국·브라질 등 신흥국 수요증가로 인한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의 상승과 식료품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상승 압박이 가중되는 상황임.

- 유로지역의 소비자물가는 12월 2.2% 상승하고 1월에 2.4% 상승함으로써 상승세가 가속되고 있는데 주요 원인은 에너지가격의 급등과 원자재 가격의 상승임.
 - 2010년 12월 현재 브렌트 국제유가와 CRB선물지수는 전년동기대비 각각 22.2%, 17.4% 증가하였으며, 식료품가격도 2009년 2월 이후 최대인 1.8%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.

(Bloomberg 2/9, WSJ 2/4, 1/24)